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양민하

부모님이 달아준 날개



기억의 풍경 · 기억탁자

양민하의 <기억의 풍경>과 <기억탁자>는 타인의 사적인 기억을 작가가 시각화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반떼 승용차를 매개로 하는 타인의 기억을 듣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추적해 간 양민하는 마침내 타인의 희미한 기억을 직조하듯 재구성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신으로 이어져 3대가 공유해 온 그 기억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운전하셨던 아반떼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때 작가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3대가 공유하는 기억이라 하더라도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의 간극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양민하는 차의 안팎에서 찍은 250여 장의 사진을 통해 뒷좌석, 보조석, 운전자석 등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기억의 풍경들'을 채집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분명한 시점의 차이를 드러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시점, 다수의 경험이 교차하는 기억의 장면들을 모아 그는 <기억탁자>를 만들었습니다. 탁자 상판에 가로세로 각각 3cm인 LED 라이팅 모듈판을 촘촘히 채워 넣은 후, 그 위에 다수의 시점으로 촬영된 250여 장의 자동차 사진을 마치 과거의 빛바랜 필름이 가끔씩 일으키는 기억의 오작동처럼 무작위로 나타났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양민하는 그동안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기반한 다양한 설치미술을 실험해 왔습니다. 이때 관객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상호적인 상황에 개입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기억의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작가는 아반떼 자동차에 관한 타인의 기억을 듣고 그중에서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한밤에 병원을 향해 달리던 안 좋은 기억과 수안보, 에버랜드로 각각 가족 여행을 떠났던 좋은 기억들처럼, 양민하는 오로지 타인의 기억에 의존한 그 여정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생산해 시각화했습니다. 관객은 작가가 차에서 떼어온 각각의 비상등, 기어봉, 운전대를 만지면서 그것에 연결된 영상 소프트웨어를 스크린 위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린 위를 교차하는 각각의 영상들은 한 개인의 기억이자, 가족의 기억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장면에 대해 작가가 임의로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유발합니다. 결국 하나의 공유된 기억과 역사마저도 수많은 시점과 해석이 개입됨으로써 어떠한 것도 완전하다거나 통합된 것은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글 · 안소연

[brilliant memories] 작가 양민하 인터뷰 & 메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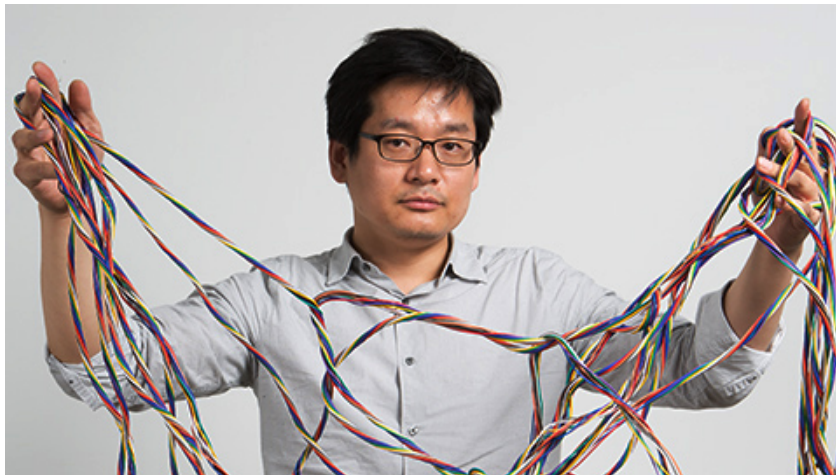


사연 소개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는 저를 보며 섭섭해하던 부모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차 열쇠를 꼭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네 차야. 우리 딸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5년산 아반떼를 아직 타고 다니는 저를 보며 다들 그만 타라고 놀리지만 저는 이 차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가 잡았던 운전대, 옆자리에서 말을 거는 듯한 엄마의 등받이. 이 차는 저에게 친정이나 마찬가지로요.

작가 양민하



작가 인터뷰

어머니에게 받은 오래된 차, 그리고 20년을 묵묵히 달려온 차라면 어쩌면 가족만큼이나 각별한 대상일 거예요. 어린 나이에 치른 결혼, 그리고 혼수와 함께 친정엄마에게 받은 차 그리고 오랜 기간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차라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오랜 기간을 지니게 되면 단순한 사물에서 기억의 대상으로 전이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차에는 하나의 가족이자 두 가족의 기억이 묶여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두 가지의 기억을 하나로 연결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티스트 양민하는 2002년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중국,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제전시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시아 디지털아트 어워드 Excellence Award(2001-2004) 외 여러 국제 디지털 아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습니다.